



토끼와 거북이의 신나는 경주

Hyogil Kwak



울창한 숲속에 자랑스러운 토끼 깡총이와 조용하고 느긋한 거북이 느릿이가 살았어요. 깡총이는 자신의 빠른 발을 뽐내며 숲속 친구들에게 늘 자랑했답니다. 느릿이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자기 갈길을 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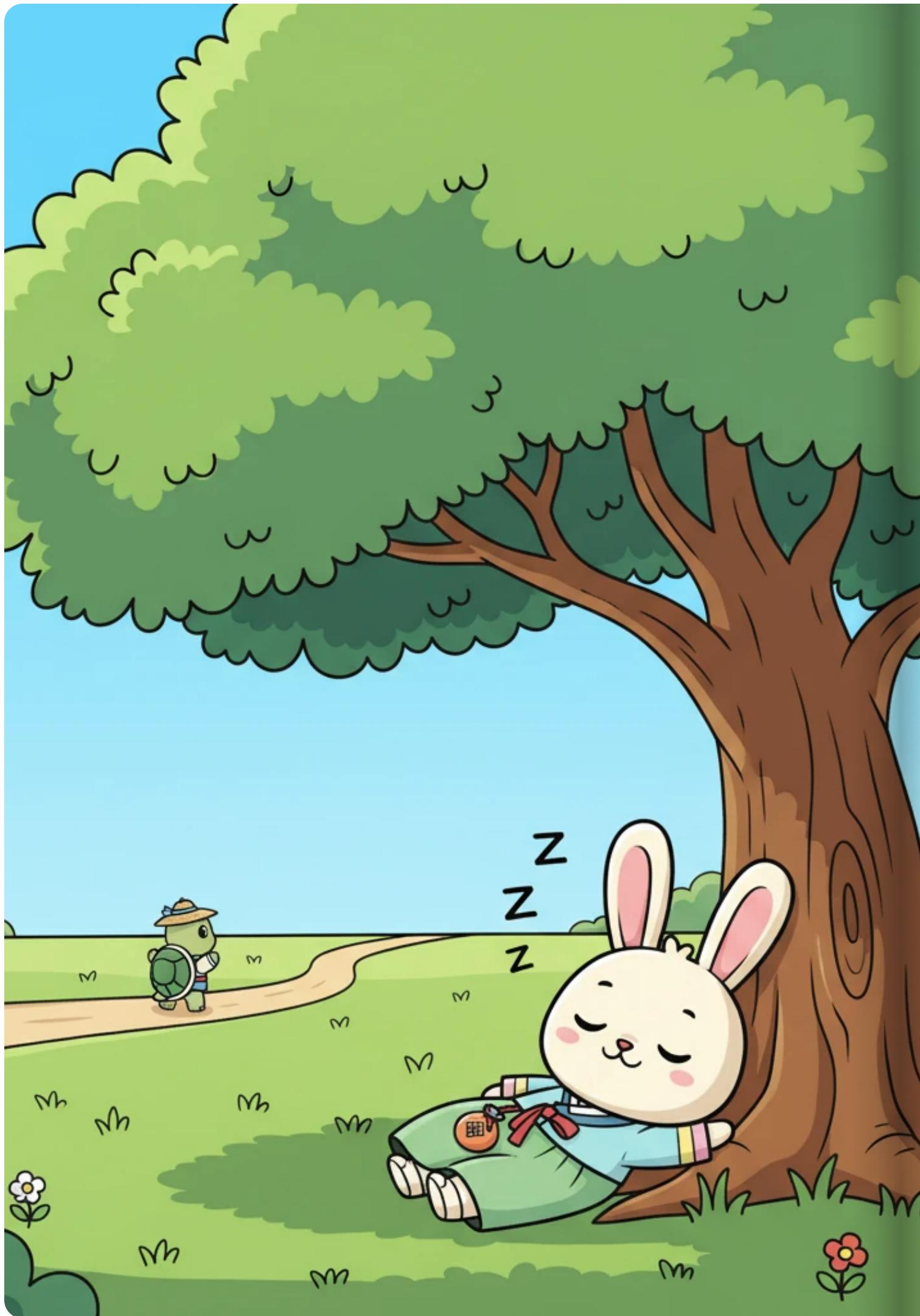
어느 화창한 날, 깡총이는 느릿이를 보고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느릿아, 너처럼 느린 친구가 세상에 또 있을까? 나랑 경주하면 분명 내가 이길 거야!" 느릿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주를 받아들였어요.



숲속 동물들이 모두 모여 경주를 시작했어요.
"출발!" 신호와 함께 깡총이는 쌩하고 바람처럼 달려
나갔어요. 그의 긴 귀는 펄럭이고, 껑충껑충 뛰는 모
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느릿이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갔어요. 그의 작은 다리는 묵묵히 땅을 짚었고, 목표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끊임없이 움직였답니다. 숲속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느릿이를 응원했어요.



한참을 달려간 깡총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느릿이는 저 멀리 점처럼 보였죠. "흥, 저렇게 느려서 언제 도착할까? 잠깐 낮잠이나 자야겠다!" 깡총이는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편안히 누워 잠이 들었어요.



깡총이는 꿈속에서 맛있는 당근을 실컷 먹으며 행복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살랑거리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죠. 그는 경주를 완전히 잊은 듯 보였어요.



그동안 느릿이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걸었어요.
땀방울이 그의 얼굴에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는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갔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어느새
꽤 먼 길을 왔답니다.



느릿이는 잠든 깡총이를 발견했어요. 깡총이의 코에서는 콜콜 잠꼬대가 흘러나왔죠. 느릿이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용히 깡총이를 지나쳐 결승선을 향해 계속 걸어갔어요.



얼마 후, 깡총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이럴 수가! 내가 너무 오래 잤잖아!" 깡총이는 허둥지둥 일어나 결승선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깡총이가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느릿이가 이미 결승선을 통과하여 숲속 친구들의 환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깡총이는 부끄러웠지만, 느릿이의 꾸준함에 박수를 보냈답니다.